

낮선 영혼과 나누는 웅숭깊은 대화

어느 책방 여주인과의 추억

조경란 | 소설가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내가 싫어하는 타입 가운데 하나는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내키지 않는데도 주뻔주뻔 일을 떠맡거나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어거지로 약속을 하는 사람, 더 싫은 건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 투덜거리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진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도 어떤 일에 관해서는 도무지 거절이란 걸 못하는 사람이 되곤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 어떤 일이란, 대개는 책과 관련된 일이다.

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고지식하게도 나는 소설가는 소설을 써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나 소설을 쓰면서 산문까지 잘 써내는 작가들이 있다. 또 일견 그들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에너지가 많거나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설 이외

의 다른 글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내가 이따금씩 거절하지 못하는 글들은 대개 이런 종류의 것이다.

가끔은 대학의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 또는 문화센터 비슷한 곳에서 특강 요청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은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할 때는 강의 내용이 '책'에 관한 것일 때다. 책에 관한 산문은 될 수 있으면 쓰고 책에 관한 이야기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다고 제멋에 겨워 남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는 한다. 그래서 아무리 원고가 밀려 있어도, 부지런하지 못해도, 가끔은 거절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은 시장통이었다. 비좁은 거리는 늘 쭉갯이나 상추, 알록달록한 무늬가 새겨져 있던 베갯보와 이불을 펼쳐놓고 고객을 하는 장사꾼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교길이면 나는 친구집이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우우 물려가는 친구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그 시장통 입구에 있는 책방으로 가곤 했다. 그때 이미 내가 유별난 독서광이었고 공부를 하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길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부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아한 건 책방 여주인이었다.

지금도 내 기억 속의 그녀는 뺨이 앞땀처럼 가늘고 푸른 실핏줄이 환히 들여다보일 만큼 희고 창백한 피부를 갖고 있었고 눈두덩이엔 고풍적으로 까만 색(훗날 처녀가 돼서야 그것이 화장품의 일종인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라는 것을 알았지만)이 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간 채 그려져 있었고 그 눈을 살짝 아래로 내려 감을라치면 길고 까만 속눈썹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나는 그녀를 좋아

했다. 책방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이쪽을 쳐다보는 그녀의 미소와 책을 포장할 때의 그 날렵한 손놀림, 책장 안에 끼워줄 책갈피를 고르느라 허공에서 잠시 주춤거리던 가는 손가락. 그러나 그건 기억 속의 일일 뿐이다. 그녀가 나와는 다른 반이었던 같은 초등학교 어느 여자에의 큰언니라는 것도 그 책방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책방 안의 쪽방에서 사과를 베어문 그 여자가 얼굴을 쑥 내밀고 큰언니! 하고 그녀를 부르는 것을 봤다. 나는 그 여자가 부러워 몸을 떨었다.

작가가 된 이후 내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에 갈 일이 생겨 지나다가 부러 그 책방을 찾았던 적이 있었다. 시장통엔 상가가 들어서 있고 학교 뒤론 민등산이 잘려나간 채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책방은 위치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그 주변 어디엔가에 남아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보니 그 시절의 여주인도 그대로였다. 여주인은 조금 뚱뚱해져 있었고 늙어 보였다. 그리고 놀란 것은 그녀가 한눈에 나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작가가 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책을 참 많이도 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을 봐도 되나 모르겠네, 축하해요.”

아마 신문이나 잡지 어디선가 내 얼굴을 봤던가 보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무슨 문예지인가를 한권 사들고는 책방을 나왔다. 나오는데 괜히 눈자위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 책방을 드나든 게 책을 보고 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보기 위해서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내가 책을 몹시 좋아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긴 기억이란 건 믿을 만한 게 못 되긴 하니까. 그 책방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사랑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 책방을 칸칸이 메우고 있던 책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어쩌면 그녀도 그 책들의 일부였는지도 모른다고.

읽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발견하는 것

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깊어지는 법이다. 생각하는 건 배우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을 배워 얻으려면 감각이나 상상력을 작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엔 관찰력과 기억력도 필요하고 풍부한 상상력도 갖춰야 한다. ‘발견’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어떤 ‘좋은’ 책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법이다. 그것은 미술을 하듯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독서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이뤄진다. 빨래를 하거나 밥을 짓는 데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독서 행위에도 특별한 규칙은 필요치 않다. 다만 좋은 책을 선별하고 그 대상을 향한 시간과 열정과 탐구의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훌륭한 독서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성장시켜준다. 이런 절대적 깨달음과 사실들을 나는 《독서의 기술》(모티머 J. 에들러 외, 민병덕, 범우사)에서 배웠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낯선 영혼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응답하는 진솔하고도 웅숭깊은 대화와 같다. 이 세상에 책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너무 평범하고 진부할 것이다.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매처럼 빛나는 눈으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나는 단 한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는 세대에 속한다.●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design partner **darum**

더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는 다름의 새얼굴입니다

이제 막 산 하나를 넘은 듯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노력이
더 큰 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른 다름의 시작입니다.
새마음, 첫마음의 각오로 다름이 도약합니다.

다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